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06:30 (새벽), 10:30 (교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년)

평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회장

우성식 바오로 010-2899-4654

모임

단체명	일시	장소
위령봉사회	12월 01일(일) 11:40	강당
M.E.	12월 01일(일) 11:50	6교실
자녀를 위한 기도	12월 06일(금) 19:40	1교실
성모성심회	12월 07일(토) 17:00	강당
우리어머니 Cu.	12월 08일(일) 11:40	식당
사도들의 모후 Cu.	12월 08일(일) 12:00	강당

교무금 납부 및 책정안내

- 어려우신 중에도 2024년 한 해동안 정성껏 교무금을 봉헌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아직 정산하지 못하신 분들은 가능하신대로 납부해 주시기바라며, 2025년도 교무금 책정도 새로이 부탁드립니다.

성시간 및 성체강복

- 일시 : 12월 03일(화), 오전10시 대성전

대림 특강 (목요일 저녁 7시 40분)

일자	제목	강사
12월 12일	기쁨과 희망의 대림시기	양승국신부님

알림

- 오늘은 국군장병 및 수감자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살레시오 꿈(CUM) 후원미사 12월2일(월) 10:30
- 12월 07일(토) 10시~12시 성탄맞이 대청소가 있습니다.

전입교우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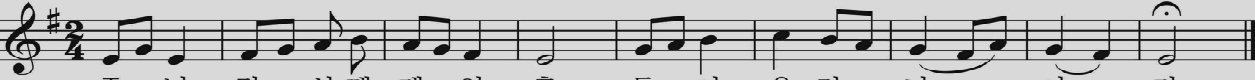
구역/반	성명	세례명	이전 본당
10 / 7	임정순	안나	서울대교구/미상
22 / 3	김수빈	마리아	서울대교구/아현동

구로3동 합창단(가칭) 단원 모집

- 새로운 도전! 아름다운 하모니! 노래를 사랑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 모집대상 : 65세이상의 합창에 관심있는 분 (합창경험이 없어도 환영합니다.)
- 접수:사무실 •문의:010-4216-9841(노인분과장)

성가번호 ♪ 입당 : 92 ♪ 예물준비 : 221, 340 ♪ 영성체 : 163, 180 ♪ 파견 : 95

화답송



주-님 당-신-께 세-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아카데미(성탄제)참여안내

- 성탄의 기쁨을 뽐내고 같이 나누는 자리입니다. 각 단체나 구역별 또는 개인이나 팀으로 참여가능하며, 신청은 사무실통해 접수해 주세요.
- 성탄성야 미사전 7시30분~9시까지 진행예정이며,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탄 전시회 참여안내

- 자랑하고 싶은 개인적인 작품이나 성탄에 맞게 작업한 작품을 강당과 복도에 작은 전시회를 열고자 합니다.(전시예정기간:12월22일~12월29일)
- 접수 : 사무실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 주일반(일,오전 9시), 접수 : 사무실

다음 주일(12/08) 청소 담당 : 11구역

우리들의 정성(11월 20일 ~ 11월 26일)

교무금	10,180,000원
주일헌금	4,694,000원
감사헌금	심진보 5만원 박용빈 5만원 이점임10만원 황선아17만원 엄기자 5만원 민경희10만원 김종란20만원 채수풍20만원 박준현 3만원 양○○ 5만원 박용숙10만원 차덕순10만원 정영자 1만원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설	복사	독서
12/01	박혜선	오성환 장희석	안상록 손정주
12/08	황원선	이응남 김영균	김덕영 김성해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12/01	도현만	김영균	최석준 최승일	김진수
12/08	김용진	조훈환	최영만	하재민 최웅조

새 ‘미사 전례시 총지침(2002년)’ 에 따른 간주된 미사 전례 지침

양형 영성체

“공의회는 신자들에게 자신이 참여하는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특별한 기회에 때때로 더욱 분명한 성사적 표지인 양형 영성체를 할 수 있게 하였다”(총지침, 14항). “거룩한 영성체는 성체와 성혈의 양형으로 할 때에 더욱 완전한 모습을 갖춘다.

양형 영성체로 성찬의 표지가 더욱 완전하게 표현되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새롭고 영원한 계약이 주님의 피로 맺어졌다는 사실과 성찬의 잔치와 아버지 나라에서 있을 종말 잔치의 관계가 더욱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이다”(총지침, 281항). 따라서 “사제처럼 신자들이 …… 미리 허용된 경우(총지침, 283항 참조)에 성혈 영성체에 참여하는 것이 크게 바람직하다”(총지침, 85항).

그러나 “가톨릭 신앙이 가르치는 대로 한 가지 형상만으로 하는 영성체로써도 그리스도를 참된 성사로 온전하고 전체적으로 모시는 것이므로 영성체의 효과와 관련하여 오직 한 가지 형상의 영성체를 한 이들도 구원에 필요한 은총을 얻는 데 아무런 결함이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총지침, 282항).

미리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교구장 주교는 자기 교구의 양형 영성체 규범을 따로 제정하여 공동체의 사목자인 사제에게 그 스스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언제나 양형 영성체를 시켜 줄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총지침, 283항 참조). 물론 이때에는 성사가 모독되는 일이 없도록 신자들을 잘 교육하여야 한다.

영성체송

영성체 성가는 여러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영성체를 하는 이들의 영신적 일치를 드러내고, 마음의 기쁨을 표현하며, 영성체 행렬의 공동체적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 영성체 성가는 영성체를 동반하는 노래로서, 전통적으로 「로마 화답송집」(Graduale Romanum)의 ‘영성체송’을 단독으로 또는 시편과 함께 부르거나 주교회의가 인준한 성가책의 찬미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영성체송 또는 영성체 성가는 사제가 성체를 모실 때에 시작한다. 참례자가 몇 사람 되지 않을 때에는 적절한 수의 사람이 영성체를 한 다음 시작하는 것도 좋다.

“노래를 부르지 않을 때에는 미사 전례서에 제시된 ‘영성체송’을 신자들 전체가 또는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독서자가 낭송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사제 자신이 성체를 모신 다음 신자들에게 성체를 분배하기 전에 낭송한다”(총지침, 87항).